

'96년 국내석유산업과 향후 과제



여 영 래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부장〉

96년元旦이 바로 엇그제인듯 한데 어느덧 한해를 마감해야 하는 送舊의 문턱에 와 있다. 세월의 흐름이 유수(流水)와 같다더니 마지막 남은 한장의 달력을 접하는 느낌이야말로 성취감보다는 웬지 허전한 구석이 더 많음은 人之常情일까.

아무튼 96년 한해를 장식했던 국내석유산업의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을 되돌아 볼때 「다사다난」했다기 보다는 어려움이 점철된 한해였다고 표현함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다.

우선 국내 석유산업을 둘러싼 주변환경 즉 국내유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의 흐름이 연초예상과는 달리 고유가기조가 지속됐다는 점이 외부적 요인으로서 가장 큰 惡材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환율변동추이 역시 상승세를 탔다는 점도 더이상의 설명이 필요치 않은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

국내 정유사들의 도입비중이 집중된 대표적 유종중

의 하나인 Dubai(두바이) 油가격은 연초들면서 배럴당 17.5달러수준에서 출발, 1/4분기동안에는 그나마 배럴당 17달러이하에서 유지되다가 6월이후부터는 강세로 돌아서 이라크사태가 발발한 9월 이후에는 배럴당 21달러를 웃도는 가파른 오름세를 지속, 11월 현재까지도 배럴당 20달러선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국제원유가격의 강세는 1백%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정유사들의 경영수지에 「적신호」를 가져다 주는 원초적 전주곡이 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로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당사자는 바로 유공, LG-Caltex 정유, 한화에너지, 쌍용정유, 현대정유로 이어지는 정유업계.

정유5사의 금년도 경영실적은 사상 유례없는 수직악화를 시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상반기까지 나타난 정유 5사의 경영성적은 한마

디로 매출액은 급증한데 반해 순이익(세전)은 대폭 감소한 기현상을 보였다.

상반기동안 정유 5사의 총매출규모는 10조6천억원을 넘어서는 급신장세(법인전체기준 전년동기 대비 23.5% 증가)를 실현했으나 순이익(세전)경우 오히려 지난해 같은기간(3천6백 26억원)에 비해 무려 67.3%가 감소한 1천1백84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들이 분석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지난 91년이후 5년간 정유사 허용이익 대비 1천억 원이상의 손실을 가져왔을 뿐만아니라 94년이후(유가연동제 실시)에는 2천억원 규모로 손실규모가 눈덩이처럼 늘어나 올해에는 3천억원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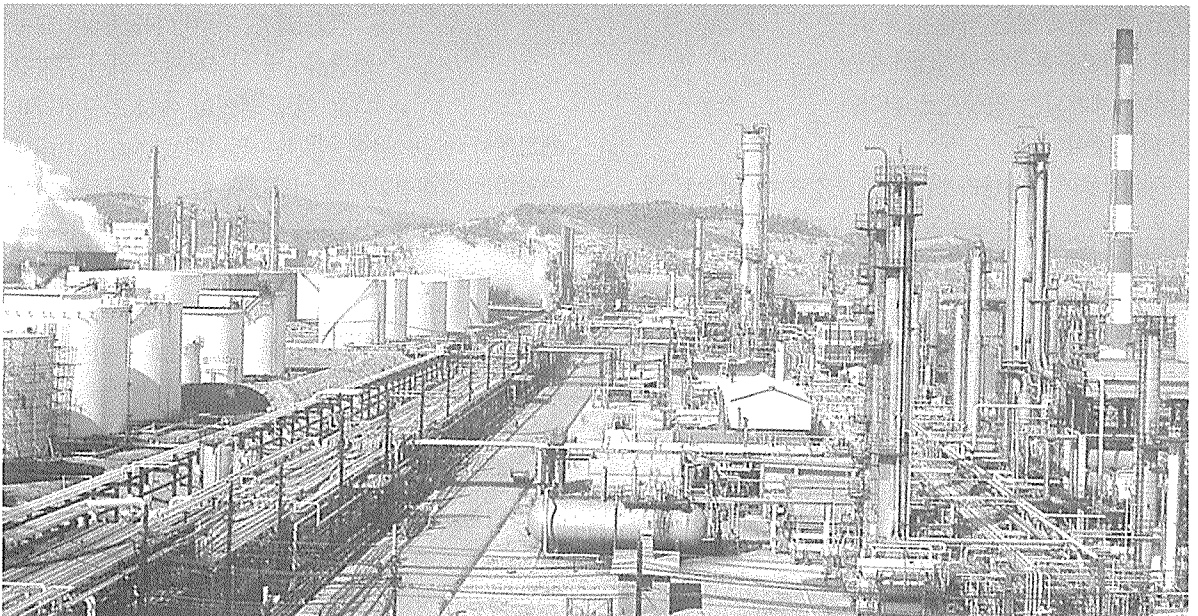
**우선 국내 석유산업을
둘러싼 주변환경
즉 국내유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의 흐름이
연초예상과는 달리
고유가기조가
지속됐다는 점이 외부적
요인으로서 가장 큰
悪材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 빚어지게 된데에는 유가결정요소인 원유가격 및 운임의 지체반영과 같은 현 유가연동제하의 정부유가관리방식의 현실화미흡과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호황을 누렸던 석유화학부문의 불황이 한데 겹쳐 발생한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원인이자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더하여 휘발유등 고부가가치유종의 최종판매처이면서도 상표표시제하의 사세를 가능하는 판단기준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주유소의 신규확보 내지는 유지관리를 위해 쏟아붓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유통자금 역시 경영수지악화를 가중시

키는 또다른 악재중의 하나다.

이들 주유소등 유통단계에 뿌려져 있는 유통지원자금규모는 지난해말까지 5조7천억원이던 것이 현재는 6



조 5천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정유업계 일각에서는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定說로 돼 있다.

여기에다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유가자유화등 석유산업자유화의 단계적 시행 및 대외 개방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각사간 경쟁력제고를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갖추어야 할 중질유분해 탈황시설과 같은 정제시설 고도화시설의 확충을 비롯 석유저장시설의 증대등 대규모 자금투자를 요하는 사업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난형난제의 수렁에 깊숙히 빠져있는 형국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정유업계의 경영수지악화는 건축경영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초강수의 처방책」이 등장하는가 하면 유가자유화시행을 불과 1개월여 정도 남겨두고 있는 지금에 와서는 석유산업자유화시행 연기論까지 심심찮게 제기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유사들이 경영난타개를 위해 초강수처방책으로 내놓은 건축경영의 여파는 곧바로 유통단계로 파급, 유통자금의 적정수준으로의 환원이라는 수순을 밟게돼 그동안 주유소업체 등에 부여해 왔던 각종 인센티브를 크게 줄여, 대금결제기간(외상기일) 단축, 제품공급가격 인상, 각종시설지원자금의 조기상환 등 거래조건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나서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반발 주유소업체는 자영주유소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유사를 상대로 『석유제품공급계약은 직영대리점과 주유소간 법적으로 쌍무합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중에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

**정유업계 관계자들이
한결같이 내다보고 있는
내년이후의 경영환경변화
추이는 한마디로
「시계(視界) 제로」상태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임을
감안할 때 국내석유산업
을 견인해 나가야 할
주체로서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정유업계가
위기탈출을 위한 「돌파구」
를 어떤 모양새로
찾아갈런지가 96년을
되돌아보면서 남겨진
마지막 숙제라 하겠다.**

는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불공정거래행위의 시정을 요하는 「제소」로 맞서 있는 결코 상스럽지 못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전술한 사례들이 올 한해동안 국내석유산업의 족적을 뒤돌아보는 자화상이다.

어찌됐던 정유사들의 경영수지악화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채 또한 생산자와 최종판매자가 한울타리속 한가족으로서의 끈끈한 정(情)이 요구되는 상황하에서 정유사와 주유소간 불편한 관계로 얽혀져 있는 악조건속에서 석유산업자유화는 눈앞에 다가와 있다.

현재 政府內에서 마무리작업이 한창인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석유산업자유화를 위한 외형적 절차는 모두 완벽하게 되는 것이다.

남은 과제는 국내석유산업이 태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굳건히 지켜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부관리체

제하에서 민간자율에 맡기는 말그대로 自由化시대에 진입하는 일대전환기적 시점에서 이러한 상존해 있는 제반 난제들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자유화의 본래취지를 어떻게 하면 성숙하게 정착시켜 나가느냐가 부여된 최대 이슈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들이 한결같이 내다보고 있는 내년이후의 경영환경변화추이는 한마디로 「시계(視界) 제로(0)」상태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임을 감안할 때 국내 석유산업을 견인해 나가야 할 주체로서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정유업계가 위기탈출을 위한 「돌파구」를 어떤 모양새로 찾아갈런지가 96년을 되돌아보면서 남겨진 마지막 숙제라 하겠다. ♣